

## 미션 대학에서의 신문의 역할

〈프린트 미디어〉가 〈전자미디어〉에 뒤졌다고 하는 느낌이 있으나 아직도 이 〈프린트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영향력을 제대로 측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p. 177). 그의 말에 의하면 활자 문화는 인간에게 초연한 태도를 가지게 하였으며 획일성과 반복성 때문에 현실에의 참여를 고무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전자 미디어〉에 비교하여 하는 말이지만 미래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음미해야 할 관찰이라고 할 것이다.

현대 대학의 기능을 흔히 가르치는 일과 리서치(연구)하는 일로 나누어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학의 세째 기능으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의 지도력 양성, 사회 참여 정신 그리고 시민적인 마음의 양성을 덧붙여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대학 사회가 가느 창조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째 기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변화의 템포가 빠른 사회 안에서 새 가치 창조의 과업을 대학에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전문 분야의 지식을 쌓아 가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자의식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Interdisciplinary 코스가 대학 교육에서 새로운 중요성을 띄게 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미국 어떤 대학에서는 철학과 교수들과 사회 과학 교수들 간에 서로 대화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의 대학 교육의 전문화가 지나칠 정도로 진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학 교수의 팔막한 취임 강연을 사회학 교수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이다. 이것

은 비단 그 대학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대학 교육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법률가의 말을 과학자가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가의 말을 정치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현상에서 오늘의 사회 생활이 단편화되고, 고립화되어가게 된 것이다. 열 사람이 모여 앉아 대화를 하여도 결국 열 사람의 독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대화의 바탕인 Universe of Discourse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 신문의 역할과 과제를 이러한 요청에 비추어 생각하면 그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인문 과학과 자연 과학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추구하고 아울러 다른 분야간의 대화의 길을 터놓는 일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자아의 추구하고 가치 창조를 기를 수 마련하는 것이 바로 대학 신문의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학 신문의 과제가 실제적인 대화를 통한 가치 창조라고 해도 그것이 대학 자체가 가치 창조를 위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없이는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학의 가치 창조는 진리의 내용과 방법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요,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추구하는 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대학 신문에는 엄격한 중립이나 <객관성> 이를테면 윤리적인 문제에서부터의 초연한 태도를 기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현실에의 양가추방이 없는 신문은 종이와 잉크의 낭비에 끝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위 중립적이니, 객관적 보도니 하는 것도 옛 이야기이다.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고 진상을 평가해서 보도를 하는 것이 현대의 보도 정신인 것이다. 가치라는 것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미션 대학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 교육 기관에서 신문이 그 특수성 때문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한이 제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문의 창조 활동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칫하면 도그마의 선포에만 끝나고 말 미션 대학의 신문이 받을 유혹과 압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독교적인 자아 의식에서부터 추구하는 진리관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는 확신은 미션 대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유리한 점일 것이다.

대학이라는 조직은 일반 사회 조직과 달라서 Phenotype 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사회 조직은 Genotype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K. Bou Hing). 미션 대학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에서 고착된 Phenotype가 되기 쉽다. 캠퍼스, 채플, 졸업식, 학생회 등등. 그러나 대학 생활의ダイ나미즘을 찾아내서 Genotype의 이미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미션 대학의 신문이 맡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미션의 보이지 않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데는 예민한 감수성과 정직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 신문은 단순한 보도 기관지일 수가 없고, 사회 책임에 입각한 지도 이념을 뒷받침할 가치 창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